오늘의 게시판

독감백신 생산공장 기공식 오전 11시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지방산업단지

행사

〈14일〉

▲독감백신 생산공장 기공식=오전 11시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지방산업단지. 오는 2008년까지 2만평에 2개동(면적 5천평) 생산 공장 건설 예정.

▲비정규직 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오후 3시 광주그랜드호텔 11층. 명등룡 광주비정규직센터 설립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이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 제조업·공공 서비스업·특수고용직·이주노종자 등에 대한 차별실태보고 및 토론.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권역별 세미나(동부권)=오후 3시 여수시청. 이건철 혁신협 사무국장이 '동북아의 신산업거점 육성과 과제', 심재수 여수시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자치분과 위원장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을 위한 혁신과제'에 대해 발표.

▲제 515회 장성 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석동연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한·중 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4회 호남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

▲천문 우주쇼=오후 7시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 우리나라 3대 유성의 하나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 관측 기회 제공.

〈15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고건(전 국무총리)씨가 '21세기 한국의 선택'에 관해 강연.

▲전남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오전 11시 목포시 신안비치호텔.

▲목포 원도심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오후 2시 목포시 산정동 갤러리 웨딩문화원 5층 컨벤션홀.

▲전남 양돈 광역브랜드 '해두루'명명식 및 출범식=오후 2시 나주 시민회관. 나주·담양·화순·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 등 9개 시군에서 돼지 공급, 광주 축협 등 10개 축산농업협동조합에서 공동 유통.

▲금남지하상가 시정 홍보관 개관식=오후 3시 금남지하상가.

전시

▲송파 이규형 개인전=21일부터 27일까지 대동갤러리. 삼락서예원 이규형 원장의 서예 40년 결산전.

▲빛고을 사진회 발표전=19일부터 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기차와 기찻길을 담은 사진 작품 전시.

▲자유시간=15일부터 23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전시관. 전시회 기획동아리 '자유시간'의 창립기념전.

▲환경과 자연 미술제=14일부터 27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광주시 환경미술협회회원들의 정기전

▲광주·전남 문인화협회전=20일까지 매트로 갤러리. 문인화 116점 전시.

▲아트그룹 엘레맨(L.M.N) 창립기념전=20일까지 대동갤러리. 조선대 출신 젊은 작가들의 작품전.

▲송묵회전=14일까지 광주 일곡도서관 갤러리. 동림미술연구원 회원들의 한국화 작품전.

▲박일정전=12월31일까지 고흥도화헌미술관. 도판화(陶板畵·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 작품 전시.

공연

▲광주시립무용단 제 88회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15일(금) 오후 7시, 16일(토) 오후 5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뉴스퀴즈

42. 천식을 앓던 '약골' 소년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의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대회 자유형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데 이어 지난 8일 열린 남자 자유형 1천500m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3관왕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경영 3관왕은 1982년 뉴델리 대회 때 최윤희가 배영 100m, 200m, 개인혼영 200m에서 우승한 이후 무려 24년만에 달성된 것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박태환 ②이원희 ③장성호 ④최준상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㊽ 20퍼센트 매력을 움직여라

자신의 매력을 보여줘야 사랑을 얻는다

애인이 없는 순진한 총각 정모(31·H증권회사근무·MBA 석사)씨는 은행원 동생의 소개로 모 호텔에 다니는 서모(여·29·대졸)씨를 소개팅으로 만났다.

그녀는 정 대리의 순수한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 학창시절 농촌체험 활동에 갔다가 남부지방에서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고, 직장이 서로 서울시청 부근이라 덕수궁 잔디밭에서 즉석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데이트하는 묘미도 특별했다.

고궁은 산책하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 하기에 편했다. 가무를 즐기지 못하는 정씨를 위해 자연히 대화중심의 데이트가 많았다. 서씨는 정씨의 직장·학벌·가족·경제력·출신지·비전 등 결혼조건보다 세련되지 않은 순진함에 신뢰를 느낀 것이다.

김모(여·27·고졸·백화점 근무)씨는 저녁 8시 무렵에야 퇴근했다. 맞선으로 만난 이모(29·대졸·건설회사근무)씨는 김씨를 기다리다 늦은 시간에야 데이트를 했다. 언젠가 영화를 보고 전철을 놓쳐 합승택시를 탈 때 김씨는 택시번호를 적어놨다며 도착하면 전화하라는 이씨 문자 메세지를 받았다. 당시 택시강도 사고가 있었던 때였다.

챙겨주는 남자의 마음에 김씨는 애정을 느꼈고 최근 결혼했다.

만남에도 20대 80대 법칙이 통한다. 20퍼센트 매력이 80퍼센트 매력을 좌우한다. 20퍼센트 장점이 80퍼센트 평범한 점을 커버하고 좋은 평가로 남는다.

짧은 문자메세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날씨나 기분, 생각을 전한다. "밖을 봐요, 하늘이 내 마음이랍니다"

잡지사 여기자의 이야기이다. 5명의 직원이 전부인 작은 잡지사에 근무하는 여기자 소모씨는 34세 노처녀다. 같은 건물 1층 구청에 근무하는 남모(32·대졸)씨는 계단에서 가끔 담배를 피우곤 한다. 생기 없는 얼굴에 넥타이가 빨강 원색이어서 촌스러워 보이는 남씨에게 노처녀 소씨는 넥타이를 선물한다. 2살 연하인 남자에게 여자는 부담없이 대해준다. 여자는 머리스타일을 바꾸라고 말한다. 남자는 여자의 조언대로 머리 모양을 바꿨다.

여자는 남자의 변하는 모습을 좋아한다. 두 사람은 결혼했다. 남자의 어울리지 않은 촌스러움에 여자는 빈틈을 느낀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코디 조언과 관심이 좋았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20퍼센트가 자기 포인트가 되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20퍼센트 매력이 상대의 사랑을 얻고, 상대와 결혼하는데 80퍼센트를 좌우한다.

누구에게나 20퍼센트 정도의 매력은 있다. 자기매력 20퍼센트를 남과 구별되는 위력적인 매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기대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20퍼센트는 매우 창조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보는 특별한 이벤트를 말하지 않는다. 생활 속에서, 대화 속에서, 행동 속에서 묻어나는 차이일 뿐이다.

미혼남녀 20퍼센트 매력은 80퍼센트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에너지다. 누구나 20퍼센트의 매력은 있다. 그 20퍼센트의 매력을 본인의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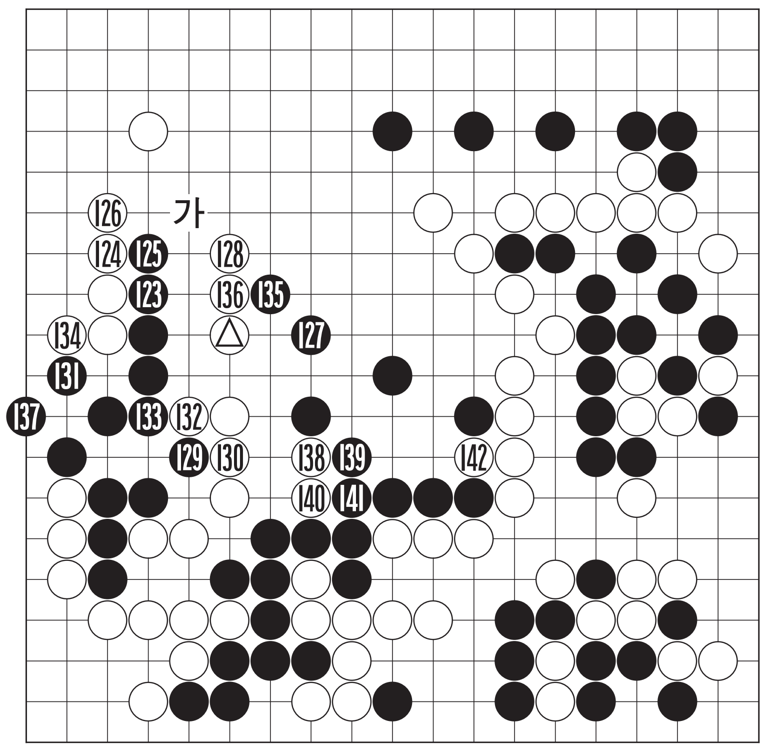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4일(음 10월 24일 丁丑)

子	36년생 지나온 세월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48년생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 60년생 기류가 답답하다 막힐 곳을 살펴보라. 72년생 안도의 숨을 돌리니 再充電을 충분히. 84년생 大苦는 없지만 큰 득도 없다 행운의 숫자 : 11, 30
丑	37년생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49년생 평범한 하루이나 苦惱數는 있다. 61년생 주변을 살펴보라 난제가 보인다. 73년생 業務上 고민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신해야. 85년생 돈거래는 삼가 하라. 행운의 숫자 : 20, 34
寅	38년생 하늘 한번 우러러 보라 부끄럼이 없는지를 살펴보라. 50년생 할 일이 많으니 아침부터 서둘러라. 62년생 길사가 계속 되나 손아래 사람은 고통이 있다. 74년생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12, 32
卯	39년생 친가 처가 양쪽에 부모님을 살펴보라 어른이 불편할 수도 있다. 51년생 자녀로 불편하니 대안을 준비하라. 63년생 문서는 꼼꼼히 서명은 천천히 살펴서 확인하라. 75년생 재물도 불안하고 妻苦가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 22, 35
辰	40년생 개운치가 않으니 좌족을 살펴보라. 52년생 부부 일전이 예상되니 조심하며 보내라. 64년생 遊興數에 속이 타니 조신해야 하리로다. 76년생 형제간의 말썽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28
巳	41년생 부부의 주변에서 소쟁이 일어나니 나누면 걱정 없다. 53년생 모든 일이 즐겁다. 나누면 배가된다. 65년생 뜻밖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77년생 욕심은 내지 말고 차분하게 돌아보며 실리로 정리해야. 행운의 숫자 : 18, 44
午	42년생 생활이 바빠지니 부부간의 사랑으로 意氣投合 쌓아보라. 54년생 직장과 남편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66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아라. 78년생 옛 것으로 말썽 나니 대비하며 지내라. 행운의 숫자 : 14, 16
未	43년생 사랑은 이제부터 알뜰하게 정을 주라. 55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언쟁은 서로가 책임이다. 67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할 수도 생기나 즐거운 일이다. 79년생 용기 있게 전진해도 무리 없이 맺는다. 행운의 숫자 : 24, 43
申	44년생 沈滯現狀이 나타나니 아래 사람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56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68년생 계획은 있으나 될 듯 될 듯 미루어진다. 80년생 빈 문서잡고 눈물 날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17, 31
酉	45년생 후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라. 57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69년생 발걸음은 가벼우나 깨끗한 마무리가 없다. 81년생 어른의 지혜를 빌려라 실수는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01, 42
戌	46년생 枯木이 봄을 만나니 하루가 즐겁구나. 58년생 희망찬 아침이다. 계획을 추진하라. 70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82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채해도 괴로워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2, 41
亥	47년생 대고는 없으나 주변인은 괴롭다. 59년생 순조롭게 진행하니 이웃과 신용을 쌓으라. 71년생 큰 투자는 하지마라 손실이 걱정되니 내일로 미루라. 83년생 좋은 여성을 만날 수다 준비하고 나가라. 행운의 숫자 : 23, 4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괴로운 삶

8보(123~142)

白 정장효 5단 〈포스코〉 黑 이강민 5단 〈PCA생명〉

백이 ◬로 뛰어나가 좌우의 흑의 양곤마를 위협하고 있는 장면이다. 백이 심하게 추궁을 않는데도 흑은 답답하다. 일단 125까지 밀고 이번에는 127로 중앙을 지키는 등 매우 바쁜 모습이다. 백은 이 와중에 126까지 좌상귀가 그대로 집으로 굳어져 불만이 없다.

이강민 5단은 흑 129로 삶을 서둘렀는데 기분같아서는 이 수로 '가'로 뛰어나가고 싶다. 그러나 중앙의 흑대마도 미생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어쩔 수 없이 흑 137까지 살았으나 매우 구차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두어서 이길 수만 있다면 산다는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으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괴롭다.

정장효 5단은 상대의 굴복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 이번에는 백 138로 중앙의 백 대마를 압박해 본다. 물론 이 백을 잡기는 힘들지만 상대의 응수에 따라 외곽을 선수로 봉쇄하는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정 5단은 계속해서 142로 빈틈을 찌르며 이 5단의 신경을 건드리며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김혜민 4단, 정관장배 첫승

김혜민 4단이 1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5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제3국에서 중국의 주지아 초단을 303수 만에 흑 5집 반으로 꺾고 한국에 첫승을 안겼다.

김 4단은 이날 대국 중반에 상변과 우하귀를 말끔하게 처리한 뒤 좌하변의 끝내기 자리를 차지하는 발빠른 행마로 항서를 받아냈다.

3연승에 도전했던 주지아 초단을 제압한 김 4단은 14일 일본의 4장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 1라운드는 이날 김 4단의 대국을 끝으로 마감되고, 내년 1월 13일부터는 2라운드가 열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97>

I hope he is doing better

그 어르신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The Park's went to their grandparents' house this week.
B:Really? Is that why they are absent from school?
A:Yes. Their grandfather is very sick.
B:**I hope he is doing better.**

A:박 선생님 가족은 이번 주 조부모님 댁에 가셨습니다.
B:진짜요? 그 때문에 그 분들이 수업에 결석했나요?
A:예, 그 분들 할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B:**그 어르신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e absent : 결석하다
I hope : ~했으면 좋겠습니다
do better : 더 좋아지다
Is that why~ : ~ 그 때문에 ~하다
- Is that why you didn't buy it?
그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지 않았나요?
- Is that why you don't want to go home?
그 때문에 당신은 집에 가고 싶지 않는가?
- Is that why you are late for work?
그 때문에 당신은 출근이 늦나요?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797>

私 寫眞寫(しゃしんうつ)り惡いから

난 사진이 잘 안나오니까

A:山田さん、寫眞ができましたよ。
B:はずかしいわ。**私寫眞寫(しゃしんうつ)り惡いから。**
A:そんなことないですよ。ほら、みてください。良(よ)く撮れてるじゃないですか。ほしいのを言ってください。燒(や)き增(ま)ししますよ。
B:の一枚、引(ひ)き伸(の)ばしてくれますか?額緣(がくぶち)に入れたいんで。

A:야마다씨, 사진이 나왔어요.
B:부끄럽군요. **난 사진이 잘 안나오니까.**
A:천만에요. 자, 보세요. 잘 찍히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것을 말해 주세요. 추가 인화할께요.
B:이거 한 장 확대해 주겠습니까? 액자에 넣고 싶어서요.

はずかしい : 부끄럽다
寫眞寫(しゃしんうつ)り : 사진의 찍히는 상태
そんなことない : 그렇지 않다
ほら : 상대의 관심을 끌때 쓰는말
燒(や)き增(ま)し : 복사 추가인화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515>

能说会道

말솜씨가 좋다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415>

管 見(관 견)

대롱 관, 볼 견

관견(管見)은 가는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엿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롱 구멍이 가늘기 때문에 하늘을 엿보아도 그 광대(廣大)함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견식(見識)이 좁은 것을 비유한다. 즉 '우물 속의 개구리'라는 정중지와(井中之蛙)와 같은 말이다. 나아가 자신의 견식(見識)을 겸손하게 낮추어 말할 경우에 사용한다.

'장자' 추수편(秋水篇)에서 위모(魏牟)라는 사람이 궤변론자인 공손룡(公孫龍)에게 다음처럼 말하였다. "장자(莊子)의 도(道)는 광대하여 당신이 아무리 시시콜콜하게 추론(推論)하고 변론(辯論)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대롱 구멍을 통해 하늘을 엿보는 것과 같고, 송곳을 땅에 박아 놓고 그 깊이를 재는 것과 같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또 비슷한 고사가 '진서(晉書)' 왕헌지전(王獻之傳)에도 보인다. 서예가로 유명한 왕희지 의 제자들이 모여 노름을 하고 있었는데, 왕희지의 아들 왕헌지는 노름도 잘 알지 못하면서 옆에서 훈수를 두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아이는 대나무 대롱 속으로 표범을 보듯이 표범 전체는 못보고 표범의 얼룩 반점 가운데 하나는 볼 줄 안다(管中窺豹)"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